

E-E2-33**Isolation of Bioactive Compounds from Mountain Root Bark
(*Paeonia suffruticosa* Andr. *Paeoniaceae*)**

Do Thi Ha, Tran Minh Ngoc, Ui Joung Youn, KiHwan Bae*

College of pharmac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5-764, Korea

Cortex Moutan, the root bark of *Paeonia suffruticosa* ADREWS (*Paeoniacea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rude drugs known as analgesic, a sedative, an anti-inflammatory agent, and remedy for female disorders and cardiovascular extravasated blood in Oriental traditional medicine. Studies on bioactive compounds of this plant resulted of 22 isolates. The structures of 19 isolated compounds namely paeonol, β -sitosterol, ursolic acid, betulinic acid, daucosterol, benzoic acid, 2,5-dihydroxy-4-methoxy-acetophenone, paeonifloigenone, benzoylpaeoniflorin, methyl gallate, Kaempferol, quercetin, paeoniflorin, α and β benzoyl paeoniflorin, (+)-catechin, galloyl paeoniflorin, and paeonoside, have been established on the basis of spectral evidence. Three remaining compounds have been identifying.

*Corresponding author: KiHwan Bae E-mail: baekh@cnu.ac.kr Tel. 042-821-5925**E-E2-34****大薊와 飛廉의 항염증작용에 대한 효능연구**

이주영*, 고윤미, 이재준, 방찬성, 함인혜, 최호영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

大薊은 국화과(Composit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영경귀 *Cirsium japonicum* De Candolle 또는 기타 동속 식물의 쏠초로, 여름과 가을에 꽃이 필 때 지상부 혹은 늦가을에 근을 채취하여 건조한 것을 사용한다. 涼血止血하므로 각종 출혈증에 효과가 있고 임상에서는 利膽, 利尿작용이 있어 급만성 간염, 신염에 적용한다.

飛廉은 국화과(Compositae)에 속한 두해살이 초본인 지느러미 영경귀 *Carduus crispus* L. 또는 기타 동속 식물의 쏠초로, 지상부 또는 뿌리를 채취하여 사용하며 관절염, 감기, 요로 감염증, 간염, 소변출혈 등에 사용하는 약재이다.

大薊은 根 또는 쏠초로서 약재가 유통되는데 쉽게 구하기 어려운 약재에 속하며 大薊根은 쏠초에 비해서 약용부위의 양이 적고 根만 유통된다면 오용될 가능성이 많아서 실제 약용부위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飛廉은 유럽과 서아시아가 원산지인 식물로서 현재는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들이나, 길가, 밭이나 논둑에서 자라며 민간에서는 관절염에 복용하며 大薊와 혼용될 가능성이 있어 연구가 필요하다.

대계 및 비렴은 경상북도 봉화 근처에서 채집하여 사용하였고 약재를 지상부와 뿌리로 나누어 각각 MeOH로 3회 추출하여 감압 농축후 사용하였다. 세포에 대한 독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Raw cell 264.7에 대하여 MTS assay를 실시하였고 NO, iNOs, Cox-2, PGE₂를 측정하여 항염증효과에 대하여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주저자: Tel. 02-961-0325, e-mail: silver290@hanmail.net